

수의사를 동물 의사로 바꾸자

윤 신 근

‘수의사’를 ‘동물 의사’로 바꾸자 또 ‘수의학’은 ‘동물 의학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동물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의료인을 ‘수의사’라 부른다. 하지만 수의사라는 명칭을 듣고 있노라면 왠지 구시대적이고 고루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수의사라는 이름으로는 동물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동물 의사’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어떤가?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알리고 소개하는데 보다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이름을 붙인다. 만약 이름이 구시대적이면 과감하게 바꿔버린다. 예를 들어 보자 최근 농과대는 농업생명과학대로 개칭했다. 또 임학과는 산림자원학과로, 축산학과는 동물자원학과나 응용 동물과학과로 각각 명칭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한의사의 ‘漢’자는 ‘韓’자로 바뀐지 오래다. 이로 인해 한의사는 우리 고유의 의사라는 느낌을 한층 강화했다. 그런데 수의사(獸醫師)는 어떤가? 얼핏 보기에 는 죄수들이 입는 옷 즉, ‘수의(囚衣)’를 연상케 한다.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들이 입은 옷 또 다른 수의(壽衣)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건물의 관리를 맡는 사람을 ‘수위’라고 부른다. 단어 역시 수의사의 발음과 매우 비슷해 자칫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에 얼킨 옷지 못할 일화도 있다. 대학 입학시험이 한창이던 어느날 모 대학의 수의대 학장은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다. ‘혹시 수의학과를 전공하면 유명 관공서의 수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수의사라는 이름이 얼마만큼 우리 사

회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축산학과에서 개칭한 ‘응용 동물과학과’에 입학한 한 여학생은 이 학과를 졸업하면 수의사가 되는 줄 알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수의사라는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또 있다. 수의사의 수(獸)자는 짐승 수자이다.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모든 동물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이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병원을 동물병원이라 부르지 않는가? 또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와 가금류, 어패류 등 기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수의사는 ‘동물 의사’라고 바꾸어야 된다.

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의 명칭도 보면 ‘인체약품’ ‘동물약품’이라고 구분하지 ‘수의약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검역소도 동물검역소, 식물검역소라고 말한다. ‘수의검역소’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 동물을 구분할 때도 소동물, 중동물, 대동물이라 부른다.

만약 짐승 수자를 꼭 써야 한다면 대수, 소수, 야생수, 실험수라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동물약품협회도 동물약품을 수의약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도 동물을 기르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에 짐승 ‘수’자를 넣지 않는다. 하지만 유독 동물병원 의사들만은 수의사라 부르고, 그들이 공부하는 과를 수의학과라 부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사회는 자신들의 직업이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부드럽게 보여지고 불려지길 바란다. 그

래서 청소부는 환경 미화원으로, 우편 배달부는 집배원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듣기 좋고 부르기가 쉬운 '동물의사'라 불러지길 원한다. 물론 수의학과는 '동물의학과'로 불러야 한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농림수산부 등 각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공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당부하고 싶다.

국제화, 전문화 시대를 맞아 동물 관련업은 한 나

라의 선진성을 결정 짓는데 중요 요건이 된다. 구태의연한 생각과 제도로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우리도 이제 부르기 쉽고 듣기 좋은 명칭을 바탕으로 선진 동물애호국으로 거듭 나아갈 것이다. 합리적이면서 한발 앞서나가는 '명칭 변경'이 동물업계에도 필요하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조정을 꼭 요망한다.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심낭삼출액의 pH 측정과 진단적 가치

The diagnostic value of pericardial fluid pH determination; *J Am Anim Hosp Assoc*; Vol 32, No 2, p 63, 1996.

심낭내로 체액의 삼출현상은 울혈성 심부전, 저알부민 혈증, 감염증, 좌심실 파열, 창상, 이물, 종양, 요독증, 특발성 삼출 등의 원인에 의해 개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심낭내 체액의 삼출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방사선검사, 초음파검사, 심전도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원인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심낭천자를 이용해 심낭액내의 세포들을 검사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심낭내 체액삼출의 원인이 종양성인지 비종양성인지를 감별해내는 데는 불충분할 뿐만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보다 빠를 뿐만아니라 심낭내 체액삼출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심낭천자법을 이용해 채취한 심낭수의 pH를 분석하는 방법이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선 심낭내 체액삼출을 보이는 11마리의 개에서 심낭액을 채취함과 동시에 정맥혈과 동맥혈을 채취해 이들의 pH를 pH분석기와 혈액 가스분석기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각 개체의 수술, 부검, 병리조직소견으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진단결과와 이를 비교하였다.

두번째 실험으로는 심낭내 체액삼출을 보이는 40마리의 개에서 소의 정맥 카테터를 오른쪽 5~7 늑간 등을 통해 심낭내에 장착하고 12ml의 심낭수를 채취해 15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를 한후 요검사시 이용하는 dipstick으로 pH(5.0, 6.0, 6.5, 7.0, 7.5, 8.0, 8.5 단위로)를 측정하였다.

이 경우 역시 최종적인 진단결과를 pH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이 두 실험에서 얻어진 pH 측정값을 심낭내 체액삼출의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비염증성중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는 종양원성(비염증원성 43마리중 41마리)인 경우에는 정상체액 pH에 가까운데 비해 염증성인 경우와 비종양원성인 경우에는 심낭내 삼출액의 pH가 중성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임상에서는 두 실험 방법중 처음보다 간편한 두번째의 dipstick을 이용한 방법으로 심낭내 삼출물의 pH를 측정해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측정치가 7.0 이상이면 종양원성으로, 7.0 이하이면 비종양원성 또는 염증성으로 진단내릴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만약 dipstick을 이용해 pH 측정시 7.0이 나온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pH를 측정기로 pH를 측정한 후 7.3 이상이면 비염증성(주로 종양원성)으로 7.2 이하인 경우에는 염증성 또는 비종양원성으로 진단할 수 있다(초역: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내과학전공 황길남).